

자활사업 추진 성과 공유

전주시, 우수 참여자·종사자 시상 등 자활사업보고대회 개최
일자리 창출·참여업체 업무협약 등 신바람 복지 구현 구슬땀

전주시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올해 자활사업에 참여한 500여 명과 함께 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2024년 자활사업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자활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18일 바울센터에서 열린 전주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보고와 19일 중부비전센터에서 진행된 덕진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보고로 나누어 진행됐다.

각각의 행사는 △2024년 자활사업 추진성과공유 △우수 참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시상식 △축하공연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 2개 지역자활센터는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세탁전문 사업단(일명 세탁대장)과 도시광산사업 등 신규 사업단을 구축해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참여자들이 민간업체에서 기술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참여업체와의 업무협약(4개소)도 체결했다. 또한 시장전환형 사업단의 연간 매출이 증가하고,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 등 탄소중립에 발맞춘 다화용기 세척 사업을 확대 지원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청년자립리도전사업단의 2회 연속 대상 수상 △생산물 경진대회 입



전주시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올해 자활사업에 참여한 500여 명과 함께 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2024년 자활사업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선 △자활 성공 수기 입선 △천기저귀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여러 지자체의 성공적인 운영사례 벤치마킹 등 자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 가운데 일부 사업장의 경우 전주시 주요 정책 사업과 연계돼 전주시민들의 신바람복지 구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통한 280여 명의 노인에게 밀반찬 배달 △1회용 기저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전주지역 아동 대상 천기저귀 렌탈 및 세탁 △폐자전거를 재활용한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

한 '다화용기 대여 및 수거세척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자활참여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스스로의 성장과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며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이번 자활사업보고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함께 나누고, 자활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2025년에도 자립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ESG 시민참여위원회 발대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실질적인 ESG 경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공단은 19일 ESG 시민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

여했다. 위원은 총 11명이며 외부 위원 9명과 내부 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 위원은 변호사, 노동자, 고위직 공무원 출신 ESG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ESG 단체 활동가 등으로 이뤄졌다.



전주시설공단 ESG 시민참여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 회의를 통해 ESG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자문·조정 및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공단은 △투명성 △포용성 △지속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논의 및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며, 정기적인 회의와 장기적 실행 목표를 설정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SG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시민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해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이연상 이사장은 "기후변화 심각성과 사회적 책임 경영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공공기관의 ESG 경영 실천은 필수 과제가 됐다"며 "시민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ESG 경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후백제 역사 규명 학술대회 개최

전주고도 지정 적정성과 의미

전주시가 후백제의 역사를 규명하고 전주를 고도(古都)로 지정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19일 전주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왕도로서 전주의 도시구조와 체계를 알아보고 선도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전주고도 지정의 적정성과 의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900년에 걸친이 전주를 후백제의 수도로 삼으며 37년간 통치했던 역사 기록과 그동안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유물을 통해 전주가 왕도로서 어떤 체계를 갖췄는지와 전주가 고도로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경찬 교수(원광대)의 '전주고도의 기본구조와 핵심영역'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문을 연 이날 학술대회는 5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진정한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후백제 고도, 전주'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문헌 기록과 발굴 유적·유물을 통해 후백제 도읍 전주의 역사성과 상징성, 후삼국기 전주의 위상, 전주의 역사 문화 환경을 살펴보고 전주의 고도 지정 당위성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차상민 전주시 학예연구사는 고대국가의 도성 체계와 외곽방어 사례를 토대로 도성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후백제 성곽 유적을 △금마권역 △도성권역 △사해안권역 △동부산악권역으로 구분하고 전주의 중요 교통로와 외곽 방어체계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전주시는 19일 전주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전주고도 지정의 적정성과 의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고도 지정의 성과와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용희 국가유산청 사무관은 여러 고도 도시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고도 보존육성 정책과 역사도시 경관 조성 성과를 통해 제도적·사업적인 측면에서 역사도시경관 보존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전주보다 먼저 고도로 지정된 익산의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배석희 익산시 경제관광국장은 지난 2004년 고도로 지정된 익산의 고도지구 지정 경과와 현재 역사문화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그동안 추진된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기도 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순자 본부장(국토연구원)은 국가유산청이 발주하고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초광역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후백제·중원)'를 토대로 후백제 역사문화권 전략계획과 전주의 역할

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본부장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거점별 역사문화환경 특성을 반영한 공간 발전 구상과 권역별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구역을 도출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역사문화권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전주고도 지정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향후 더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도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노령 로타리클럽, 사랑의 백미 40포 기부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노령 로타리클럽(회장 황인석)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해 달라며 백미 10kg 40포를 서서학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전주노령 로타리클럽은 로타리의 봉사 이념인 초야의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회장단 및 전회원이 지역 봉사 및

발전에 협력을 다하고 있으며 온정과 희망을 전하며 봉사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인석 전주노령 로타리클럽 회장은 "소외되는 이웃들이 따뜻한 밥 한끼로 조금이나마 든든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씨앤씨어패럴, 1100만원 상당 사랑의 겨울 옷 기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한 ㈜씨앤씨어패럴(대표 이운영)이 연말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1,100만 원 상당의 겔옷 330여 벌을 팔복동 새마을협의회를 통해 기부했다.

이운영 ㈜씨앤씨어패럴 대표는 "외롭고 어려운 분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사랑 나눔을 이어가



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2024년 진안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council.jinan.go.kr>

2025년 진안의 미래, 의회가 군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